



[산업] 삼성 '갤 Z플립' 11일 미서 언팩 06



Economy

코스피	2227.94 (+62.31)	코스닥	672.69 (+11.37)
금리 (미국 3년)	1.31 (0.00)	환율 (원/달러)	1179.80 (-11.70) (6일)

금감원 관치 역풍 손태승 소송 불사?

우리금융 경영공백 최소화 위해 금감원 통보까지 현 체제 유지 내부통제 부실로 퇴출 근거 취약 손태승·함영주 등 법적대응 예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지주이사회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최종통보까지 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의 연임의지가 강해 금감원 제재심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례상으로도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받은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한 사실이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부회장의 행보도 법적 대응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사실상 차기 회장 유력 후보였던 함 부회장으로서 김정태 회장의 임기(내년 3월)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중징계 법적근거 미약...당국은 '책임 전가'

금감원의 이번 은행 CEO 중징계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든 사건이다.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제동을 건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문제는 과연 DLF(파생결합상품) 판매때 드러난 일부 불완전판매에 대해 CEO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다.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데는 DLF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본점 차원의 영업 압박과 리스크 관리 부재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소리다. 이는 우리·하나은행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부 통제 부실의 문제를 들어 최고경영진(CEO)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있다. 그러나 법규에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금융사 임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 금융권에서 경영진을 퇴출하는 결정을 하기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나선 이유다. <4면에 계속>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또 4명 확진... 지역확산 비상

정부, 신종코로나 확산우려 커져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

국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 발생했다. 이틀만에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도 커졌다. 정부는 신종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2·3면>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된 20번째 환자는 41세 여성으로, 15번째 환자(43세 남성)의 가족이다. 이 환자는 5일 자가격리 중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됐다. 15번째 환자는 중국에 있는 우한국제패션센터 내 한국관인 '더 플레이스'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21번째 환자는 59세 여성으로, 국내 첫 2차 감염자로 확진을 받은 6번째 환자(55세 남성)의 접촉자다. 20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5일 자가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에서 확진환자로 확인되

면서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했다.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54세 남성)와 식사를 함께한 후 감염됐다.

22번째 환자는 46세 남성으로, 태국 여행에서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42세 여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상태였으며 이날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함께 여행했던 딸(18번 환자) 역시 전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3번째 환자는 58세 여성 중국인으로, 지난달 23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 보건소 조사에서 발열이 확인돼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날 양성으로 확인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입원할 예정이다.

전일 3명의 확진자가 늘어난데 이어 4명의 추가 환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불안정한 마스크 수급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들은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자, 단가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세경 기자 selee@

BNK금융 회장 김지완 연임 확정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 이연임에 성공했다.

BNK금융지주는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17년 9월 대표이사 회장 취임 이후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임직원 소통을 통한 그룹 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확산 등으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그룹의 4대 핵심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은행과 비이커의 중심의 그룹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편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車 이어 전자·반도체까지 국내 산업계 '코로나쇼크'

생산공장 잇따라 멈춰 공급난 우려

국내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7일부터 모든 생산 공장을 멈추기로 했다. 이미 울산 5공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생산을 멈추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이번주까지 잠정적으로 공장을 멈춰 세운 상태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다음주부터 공장을 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도 생산중단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화할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부품 수급 문제가 장기화될시에는 당장이라도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소 협력사다.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 순환이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1주일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상 길어지면 한달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전자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쑤저우 공장과 LG전자 공장 10여곳, LG디스플레이 엔타이 조립 공장과 SK이노베이션 창저우·엔타이 공장이 9일까지 생산을 멈춘 상태다. 만약이라도 중국 정부가 휴업을 연장할 경우에는 공급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도 비상이다. 삼성전자 쑤저우·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충청 공장,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우시 공장은 일단 최소한으로 공장을 가동 중인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가동까지 막대한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나마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공장은 최근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자리를 옮긴 덕분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



마스크 착용한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연합뉴스

진화 안되는 'ESS 화재' 논란

“배터리 결함” vs “직접적 원인 아니다”

<2차 조사위>

<LG·삼성>

지난해 1차 조사단 발표 이후 논란이 지속됐던 ESS화재 원인에 대해 2차 조사위원회가 '배터리 결함'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ESS화재 2차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했던 ESS(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원인에 대해 이날 최종 발표했다. 2차 조사위는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ESS화재 5건 가운데 4건에서 배터리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연달아 발생한 ESS 화재로 인해 지난해 6월 1차 조사위가 꾸려졌고 원인 규명 및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1차 조사위는 ESS의 화재 원인이 배터리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등이 작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2차 조사위가 출범했다.

2차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 예산(2019년 8월 30일) ▲강원 평창(2019년 9월 24일) ▲경북 군위(2019년 9월 29일) ▲경남 김해(2019년 10월 27일) 등 4건의 화재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됐다. 전체 5건 가운데 LG화학이 충남 예산, 경북 군위, 경남 하동 등 3곳, 삼성SDI가 강원 평창과 경남 김해 등 2곳에 배터리를 탑재했다.

각각 2곳의 사이트에서 배터리 결함이 나온 양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ESS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배터리가 아니다'며 '배터리와 화재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2차 조사위는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화재에 대해 "운영기록을 통해 배터리가 발화지점인 것으로 분석됐고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며 "일부 파편이 양극판에 점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배터리 분리막에서 리튬석출물이 형성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